

"지방대학" 시대의 새로운 의미와 정부의 과제

개회식

- ▶ 개회사 : 양성렬(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 이사장)
- ▶ 축 사 : 유기홍(더불어민주당, 전 교육위원장), 조해진(국민의힘, 전 교육위원장)
- ▶ 진 행 : 최윤선(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사무총장)

발표

- ▶ 발표회 좌장 : 강신철(대학정책연구소장)
- 1. "지방대학"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자 발표 : 안상준(안동대 교수, 국·사교련 자문위원)
- 2. 기초학문 진흥으로 진정한 "지방대학" 시대를 열자 발표: 위행복(한양대 명예교수,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)
- ▶ 토론 : 김일수(교육부, 고등교육정책실장), 이강재(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), 안현식(동명대, 부산경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)
유진상(창원대 교수회장), 강홍석(전주대학교, SCI 학술지 『Nanomaterials』 편집위원), 김미정(경북대 인문대학 차기학장)

폐회사 : 이상훈(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공동회장)

행사일시

2022.07.22

15:00pm-18:00pm

행사장소

한국프레스센터
(기자회견실)

주최 : (사)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,
(사)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

주관 :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



INNOVATION



"지방대학" 시대의 새로운 의미와 정부의 과제

07.22

- 초대사 -

윤석열 정부가 “지방대학”에 대한 지자체의 행·재정적 권한을 강화하는 “지방대학 시대”를 열겠다는 국정과제를 내놓았고,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학 내외에서 착잡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

14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을 맞고 있고, 그 와중에 기초학문 분야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고 있는데,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반도체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.

진정한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“지방대학 시대”를 열며,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 환경을 복원할 대안을 학계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<“지방대학” 시대의 새로운 의미와 정부의 과제>라는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고견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양성렬
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 위행복 드림



INNOVATIO